

세자드 다우드, 바라캣 서울서 개인전 '리바이어던'

기사입력2018/08/30 19:38 송고



세자드 다우드 '리바이어던: 흑점과 고래' 전시장 전경[바라캣 서울 제공=연합뉴스]

(서울=연합뉴스) 정아란 기자 = ▲ 서울 종로구 삼청동 바라캣 서울은 다음 달 1일부터 영국 작가 세자드 다우드 개인전 '리바이어던: 흑점과 고래'를 연다.

작가는 기후 변화, 해양 복지, 민주주의, 이주, 정신 건강 등 이 시대 난제를 여러 전문가와 놓고 고민하는 '리바이어던'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.

세계 순회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'리바이어던' 중심을 이루는 영상 작업의 네 번째 에피소드를 선보인다. 이번 영상 배경은 태양계를 덮친 재난으로 소수만 생존한 가상의 미래다.

이번 전시에는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주제로 한 신작 회화도 출품됐다.

작가는 연오랑을 그리워한 세오녀가 바위에 놓인 연오랑 신발을 본 후 그를 따라 일본으로 가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주목했다.

작가는 이야기 속 신발을 '잃어버린 난민의 소지품'으로 여기고, 신라에서 해와 달의 정기를 되찾고자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을 일몰의 순간으로 풀어낸다.

전시는 11월 4일까지. 문의 ☎ 02-730-1949.

airan@yna.co.kr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2018/08/30 19:38 송고